2006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건축의 내재적인 조성을 알고 체험함

메시지 13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다윗의 자손을 체험하며 누림

성경: 삼하 7:12-14상, 마 1:1, 2:2, 13:3-8, 18-23, 14:16-21, 15:26-28

I.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왕,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를 천국 안으로 인도하신다—삼하 7:12-14상, 마 1:1, 2:2, 4:17, 5:3.

A. 모든 권위는 주 예수님, 곧 하늘에 속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에게 주어졌다—28:18-19.

B.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왕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왕권과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8:8-9.

1. 우리가 그분의 권위, 그분의 행정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그분의 왕권 아래서 우리에게 온다.
2. 복음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이 먼저 생명의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이 왕국의 방식으로 제시된다—4:17.
   a. 우리는 반역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8:2, 요일 3:4.
   b. 우리는 우리의 반역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를 안과 밖에서 다스리실 수 있다—골 1:13.
3.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은 우리도 신성한 권위 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마 16:19, 18:17-19, 28:18-19.

C. 다윗의 자손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이 사용하시는 영역이다—눅 1:31-33.

1. 축복은 하나님의 권위의 범위, 곧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는 영역을 요구한다. 그러한 범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길이 없다—마 5:3-11.
2.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로 채우신 왕국을 가지신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 안에서 그분의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되시기 위해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행하실 수 있다—갈 3:14.

D.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그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씨)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마 1:1.

1.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신 것은 땅의 모든 열국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창 22:18, 고전 15:45하, 갈 3:14, 16.
2.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누리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생활함으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축복으로 누린다.

II.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다윗의 자손은 씨 뿌리는 분이시자 씨,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마 13:3-8, 18-23, 골 2:9.

A. 씨 뿌리는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사람 안에 뿌리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의 심장이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관계되기 때문이다—막 4:3-4, 14, 엡 1:5, 9.

1.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토양인 우리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이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뿌리셨다—마 13:23.
2. 씨 뿌리는 자로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뿌리셨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 속에서부터 표현되시기 위한 것이다—갈 2:20, 4:19, 빌 1:20-21상.
3. 주 예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연합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요소가 되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B. 신성한 생명과 인성의 연합으로 조성된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은 실재로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는 땅인 사람의 마음 안으로 자라는 식물이다—마 13:23, 눅 8:15, 엡 1:23.

C. 삼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체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뿌려져 밀을 자라게 하시며 그 밀은 함께 한 실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섞여질 수 있는 많은 밀알들을 산출한다—고전 10:17.

III.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다윗의 자손은 먹이는 분이시다. 그분이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마 14:16-21, 15:33-38.

A. 그리스도께서는 보리떡(낳는 생명)과 생선(구속하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먹이신다—요 6:9.

1.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낳는 생명과 구속하는 생명이 모두 필요하다—마 14:17.
2. 보리떡은 우리를 위한 음식이신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요 11:25.
3. 구속하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에서 세상의 부패에 영향 받지 않고 사셨다—17:14-16.
4.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그분의 구속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B. 우리는 상 아래의 떡 조각인 부스러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마 15:22-28.

1. 가나안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부서진 부스러기로서 그녀의 분깃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우리의 분깃이시다—26-27절.
2.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을 사용하여 부스러기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게 해야 한다—28절.

C. 그리스도께서는 떡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26-27절, 32-38절.

1. 하나님의 경륜은 외적인 일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 속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분을 취해야 한다—엡 3:17상, 요 6:57.
2.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떡이신 그리스도를 더 먹을 때 왕의 성분이 우리 안에 더 조성되어 우리 속에서 다스리는 요소가 되며 천국인 그분의 행정 안에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가가 되게 한다—단 2:34, 35하, 44-45, 마 16:18.

© 2006 Living Stream Ministry